

사회

# ‘한파 습격’ 목포가 난리났다

### 윈도심 일대 수돗물 쫄쫄... 친척·친구집 찾아 ‘겨울 이산가족’

#### 사우나서 세수·화장실 찾아 공공기관 ‘기웃’

#### 식당·시장·세차장 휴업... 짬짬방은 ‘복새통’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는 겨울이 비교적 따뜻한 곳으로 평가받았던 항구 도시 목포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유달동·죽원동·복원동·산정동 등 윈도심 지역 수 백 가구는 보름 전부터 수돗물이 쫄쫄 얼어붙는 바람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까지 생겨났다.

직장인들은 사무실의 물이 안나와 용변을 위해 비교적 상황이 나은 근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기웃거리고, 세면을 위해 아침마다 사우나로 ‘출근’하는 이도 있다. 세차장은 ‘울고’ 짬짬방은 ‘웃는’ 등 업종간 희

비도 엇갈리고 있다.

◇‘겨울 이산가족’=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산정동 송모(51·회사원)씨 가족은 최근 집으로 연결되는 인입수도관이 얼어 물이 안나오면서 졸지에 이산가족이 됐다. 아침마다 단장을 해야 하는 대학생 딸은 강의가 끝나면 짬짬방에서 잠을 자고, 아들은 아예 친구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송 씨는 평소보다 30여분 빨리 집에서 나와 사우나에 들른다. 세수와 면도를 위해서다. 아침은 대중 사우나고 점심과 저녁은 모두 밖에서 해결해 생활비 지출도 부쩍 늘었다.

윈도심 지역 주택들은 지은 지 수십년이 넘어 단열이 제대로 안되고, 수도관 결빙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원치 않아 수돗물이 막혀버린 수백여 가구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우(解憂) 고민=직장에서 진풍경이 속출하고 있다. 모닝커피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다방에서 배달시키거나 생수를 사다 끓이면 된다. 문제는 화장실이다. 근무 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로 가서 근심을 해결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날마다 실내 청소를 못해 근무환경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

◇매출 격감=옛 청호시장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이모(46)씨는 아예 가게에서 잠을 잔다. 가까이에 있는 안집은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식당들도 수도관이 얼고 녹

느냐에 따라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해 손님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평소처럼 영업준비가 원활치 못해 매출도 푹 떨어지고 있다.

◇희비 교차=타격이 가장 큰 곳은 세차장. 물이 나오지 않아 세차 고객을 돌려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을 떨어야 할 판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반해 짬짬방과 사우나는 밀려드는 손님들로 복새통을 이루고 있어 주인들은 희색이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목포지역은 지난해 12월 30일 24.3cm 등 12~1월 모두 20차례 눈이 내렸다. 1월 평균 최저기온역시 평년(1971~2000년)은 영하 1.4도였으나, 올해는 30일 영하 8.3도를 기록하는 등 평균 영하 2.2도로 떨어졌다.

# 지리산에 화재 산림 12ha 태워

#### 일몰로 진화작업 중단

30일 낮 12시50분께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지리산 자락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대원과 군청 직원, 경찰 등 860여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로 오후 7시 현재 지리산 일대 12ha(12만㎡)가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지점의 산세가 험하고 날까지 어두워지자 오후 7시께 산불진화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화재 현장 일대는 지난 주말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등 건조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 현장에 초속 7~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불에 약한 소나무가 많아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불이 난 곳은 지리산국립공원으로부터 8km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인력 외에도 헬기 8대와 펌프 차량 5대, 물탱크 차량 2대 등이 투입돼 대대적인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진화작업을 재개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

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리산에서는 지난해 11월 경남 함양군 마천면 두류봉에서 불이 나 산림 1만㎡를 태우고 진화되기도 했다.

/김홍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 길 건너던 대학생 냉동탑차 치여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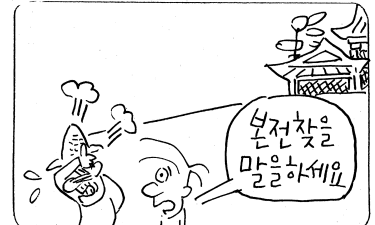
지난 29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최모(27)씨가 몰던 5t 냉동탑차를 길을 건너던 한모(23·장흥군 관산면·광주 모 대학 1년)씨가 치였다. 이 사고로 한씨 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한씨는 방학을 맞아 인근 뷔페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동료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가 도로 건너편에서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갑자기 길을 건너었다”는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8234) 김중두



### 모친 살해 혐의 경찰 간부 구속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광주일보 1월 29일 3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은 30일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영장이 청구된 이모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세 차례 불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해, 5시간여 뒤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의 빗 2000만원을 갖기 위해 보험사기를 하자고 어머니에게 제안했다”며 “보험금을 탈 정도의 상해를 가하려 했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딸 주르고 금목걸이 훔친 주부

○평소 딸이 값싼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 하던 40대 주부가 금은방 진열대에 놓인 금목걸이를 훔쳤다 경찰서행.

○3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42)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한 금은방에서 가게 안에 있던 신모(여·56)씨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자신의 손목시계 수리를 의뢰하러 갔다가 목걸이를 훔쳤는데, 경찰에서 “평소 딸(20)이 색이 바랜 도금 목걸이를 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금목걸이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며 뒤늦은 후회.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 “네 입으로 부모 욕해봐”

#### 인권위 공개, 전의경 구타·언어폭력 충격

30일 전의경 부대 대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 내용에 따르면 선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타나 언어폭력·괴롭힘·성희롱을 당했고, 그 정도도 최근 경찰이 공개한 소원수리 내용보다 심했다.

2009년 12월 경북의 한 경찰서에 전입했다는 전경대원 A씨는 선임한테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성희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지난해 1월 가족을 통해 진정했다. 진정에 따르면 그가 전입 때부터 선임들한테서 손가락 따지를 끼고 생활하도록 강요당한 것은 예사일이었다. 따지를 끼고 옆드려 뻗쳐 상태에서 폭행당해 갈비뼈

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기도 했다.

경찰서 직원의 차량번호를 옆새 동안 70%, 13일 동안 100% 외우라는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자 밤 5대, 가슴과 복부 15~20대를 맞았다. 어느 날에는 일식 접시가 끝난 뒤, 한 선임병이 그의 바지에 손을 넣어 20분가량 성희롱했다.

심지어 부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나는 쓰러기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씨××입니다” 등 부모를 욕하도록 강요당한 적도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래도 설... 제수용품 장보기** 동창군도 설을 준비하려는 주민들의 바쁜 마음을 막지 못했다. 30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말바우시장이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KIA 야구공 200개 실종사건

#### 무등야구장 연습구 사라져... 경찰 수사 나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야구공 200개는 어디로 갔나?

지난 27일 광주북부경찰에 이례적인 사건이 접수됐다.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야구장 3루쪽 인근의 물품 보관소에 있던 야구공 200개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 물품 보관소에는 야구공과 베이스 등 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이 보관돼 있었지만 야구공 이외에 사라진 물품은 없었다.

야구공 도난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날 초·중·고

에도 야구공 수십 개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이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경찰에서 “선수단이 전날 휴식을 취한 후 훈련하러 야구장에 나왔는데, (야구공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없었다. 도난사건이 처음이 아닌 만큼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야구공만 사라진 점과 선수단 훈련 일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내부인 또는 야구 동호회원 등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 성폭행 혐의 구속 30대

## DNA 조사로 2건 추가 확인

#### 광주서부경찰

경찰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광주일보 1월13일 6면)에 대한 DNA 조사를 통해 2건의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광주서부경찰은 30일 귀갓길 여성을 성폭행한 조모(32·광주시 서구 중앙동)씨를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6일 새벽 광주시 서구 한 원룸에서 귀가 중이던 A(여·22)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된 조씨를 상대로 구강세포에서 DNA를 채취한 뒤 미제 사

건으로 남아있던 성폭행 피해 여성들의 DNA와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2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조씨가 지난 2008년 8월 12일 새벽 4시2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원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던 B(여·27)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조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5시께 광주시 서구 처평동 한 원룸계단에서 C(여·28)씨를 성폭행하는 등 새벽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를 2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가 중이다.

/김홍기자 kimho@kwangju.co.kr

## 10대들 마트·식당 털고 오토바이 훔쳐

#### 서부경찰 3명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30일 상습적으로 마트와 식당을 털고 오토바이를 훔친 10대 3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모(16)군 등 민군의 친구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군 등은 지난 24일 새벽 2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 한 마트 지하 물품 보관창고에 들어가 쇠고기와 라면을 가져가는 등 7차례

에 걸쳐 총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구동 한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가는 등 총 4대의 오토바이(6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친구 또는 선배 사이인 이들은 가솔해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홍기자 kimho@kwangju.co.kr

#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9급 공무원 시험 [퀴즈]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 법원/경찰직

강의시간 :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령강사진 총출동

### 9급 야간반

강의시간 :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특강반

###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 명품 "강력단과"

명예, 귀, 행정, 행정, 국어, 한문, 회화, 경찰, 교육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